

경제

할인·경품에 볼거리...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 오세요

광주지역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무휴일인 23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석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할인혜택과 경품 제공, 문화행사 등 풍부한 볼거리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 대인·무등·말바우시장 등 23일 다양한 이벤트

남구 무등시장은 23일 하루 동안 친환경 계란(300판 한정) 등 9개 품목에 대해 깜짝 세일을 진행한다. 특히 인근 대형마트에서 5300원에 팔리고 있는 계란 1판을 3000원에 파는 등 화장지(100개), 선물용 라면(100박스) 등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무등시장은 지난 8월부터 매일 2·4주 금요일에 특가판매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남구 봉선시장도 2만3000원대의 추석 선물세트를 9000원에 할인판매(200개 한정)한다.

상 구매한 고객에게 핸드크림(400개 한정)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동구 남광주시장도 명태포 등 제수용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승우 광주시장상인연합회 부회장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해야 할 일"이라며 "시민들이 애정을 갖고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인구>

영암군 주민수보다 더 많은 고용인구

출퇴근자 많아...고용률 107% 전국 최고

영암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100% 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2/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특별·광역시 제외) 9개도의 시·군 대상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를 기준으로 고용률이 10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는 4만6700명에 불과하지만 영암에 직장을 둔 취업자 수는 5만4000명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보다 지역에서 일하는 고용인구가 더 많아 고용률이 100%를 넘어섰다. 영암 인구는 적은 반면 대불국가산업을 살려본 결과 영암군의 '근무지 기준 고용률'이 10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신안(74.5%), 해남(73.1%), 고흥(71.5%)이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고용률 상위지역에 해당했다. 지역 특성상 농업·농림업 비중이 큰데다 고령층과 여성층이 수시로 농사일을 하는 것이 취업자(비임금근로자)로 분류돼 고용률이 높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전남의 평균 고용률은 시지역이 58.0%, 군지역은 67.5%, 평균 실업률은 시지역 1.3%, 군지역 0.8%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시지역의 경우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발달의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고, 군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농림업부문의 경제활동이 많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영광굴비 추석선물 인기

2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추석 특선매장에서 한 고객이 영광굴비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백화점 측은 "올해는 추석선물로 영광굴비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위험 주택대출 석달새 9%↑

금감원 사전채무조정제 적용 등 대책 추진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된다.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없이 금융권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하우스푸어 실태조사를 마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단기 대응의 성격이 짙다. 그만큼

하우스푸어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LTV·Loan To Value ratio)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올해 3월 말 43조 9000억원에서 6월 48조원으로 9.1% 늘었다. LTV 상한 초과 대출은 2007~2009년 30조원 안팎에 머물렀으나 2010년 말 45조5000억원, 지난해 말 41조4000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광주 남구·전남 20개 시군 등 태풍 특별재난지역 이통3社 통신요금 1개월치 감면



광주전남지방우정청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강타한 광주 남구와 전남 20개 시·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통신요금이 1개월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광주 남구와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전북 남원·정읍·완주·고창·부안·김제,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부여, 충북 괴산 등 30개 지역이다.

플러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KT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 가입자의 8월분 요금이다. 이동전화는 개인 1인당 5회선까지, 법인 1곳당 10회선까지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 받을 수 있고, 유선 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만 최대 3만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광주전남지방우정청 노·사는 지난 19일 오후 우정청 교육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우정청 김병수 청장과 박동원 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광주경영자총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선언문에서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협력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노·사상생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근로자를 존중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 번호이동 위약금 수익 작년 한해만 3000억원 쉐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한해 동안 타사로 떠나는 고객으로부터 받아온 위약금 수익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며 타사 고객을 빼앗아 오는 반면 타사로 떠나는 고객에게는 그에 상당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수입은 모두 3157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T가 타사로 떠나는 해지고객 271만3000명에게 1304억70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타사 고객을 빼앗아 오는 반면 KT가 타사로 떠나는 해지고객 218만명으로부터 1017억원, SK텔레콤이 191만8000명에게 835억 4000만원의 위약금을 각각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지수	1,990.33 (-17.55)
코스닥지수	528.06 (-)
금리 (국고채 3년)	2.82% (-0.06)
원·달러 환율	1,123.10원 (+8.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세상이 기다리던 행복한 Party가 시작된다
2012 이문세 붉은노을여수

9.21(금)~22(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7시 GS칼텍스 예울마루

문의 1588-0766 예매 티켓마루, 인터파크 주최 광주일보 주관 공연마루 제작 (주)무봉